『신앙과 학문』, 제 11권 2호 (2006. 12), 41-70.

한국 기독교 민족운동의 역사적 쟁점과 과제

박양식(숭실대 강사)

논문초록

기독교 민족운동을 논하면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민족 문제에 관련한 기독교인의 사고와 행동이다. 민족 문제를 어떻게 규정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느냐에 따라 민족운동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민족 문제에 대한 인식은 역사적 당면 과제를 파악하게 한다. 기독교 민족운동은 민족주의와 제휴하여 동력을 얻었다. 개신교를 받아들인 근대한국인은 새로운 보편적 체계인 기독교적 이념 위에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명감을 높였다. 이렇게 세워진 한국 기독교 민족주의가 민족 통합이라는 민족 공동의 목표를 위해 행했던 역할에 대한 조명이 필요하다. 한국 기독교 민족운동에서 기독교인 민족 지도자들은 민족 통합의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그 목표는 노선 차이로 인한 분열 때문에 달성되지 못하였다. 이에 비추어 한국 기독교 민족주의와 그것이 지닌 논리와 방법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청된다. 역사 연구는 역사적 반성을 이끌어내며 시대적 과제에 대한 각성을 일으킨다. 각성은 역사적 행동을 자극하고 그로 인해 이루어지는 역사 만들기는 한국 기독교의 시대적 책임이다.

핵심주제어: 민족운동, 민족 문제, 기독교 민족주의, 민족 통합.

섬원한 우리땅, 독도
Dokdo forever
belongs to Korea

I. 서론
II. 기독교 민족운동과 민족문제
III. 한국의 기독교 민족주의
IV. 한국 기독교 민족운동의 구조와 방법론
V. 맺음말

I. 서론

한국 근현대사를 논하는 주된 초점 중 하나가 민족운동이다. 외세의 침입과 더불어 민족 현실이 암울한 상태에서 민족의 과제를 인식하고 그에 따른 실천을 모색함으로써 민족운동을 태동시킨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일제 식민지로 전락하고 해방 이후 분단 상황에 직면하고 세계정세의 변화에 따른 통일 전망이 밝아지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다양한 세력의 다양한 민족운동이 있어 왔다. 그런 면에서 민족운동은 한국 근현대사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이다.

기독교는 새로운 사회 세력으로서 한국 땅에 등장한 초기부터 민족운동에 뛰어들었다. 기독교는 한민족이 개항 이후 당면하고 있던 역사적 과제 곧 반봉건성과 반외세 문제에 직면하여 민족운동을 그 나름의 방법으로 전개해 갔다는 것이다(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1989: 289-307). 이후에도 기독교는 한국 근현대사의 흐름에 발맞추어 민족운동의 대열에 합류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한국 기독교 활동은 한국 교회사에서 기독교 민족운동이란 용어로 설명된다. 그것은 하나의 공식화된 학술용어처럼 사용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 민족운동에 대한 평가도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독교의 민족운동 참여는 한국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하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가 지닌 사회에 대한 강한 책임과 사명을 역사적 전통으로 남겨 놓았다는 것이다(노치준, 1993: 5.). 이런 이유에서 기독교와 민족운동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기독교와 민족운동에 관한 연구는 시기적으로는 한말과 3·1운동 이전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제국기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태이고, 해방 이후의 연구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자료의 제한성과 함께 연구자의 인식적 범주에 따른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연구 성과 면에서 본다면 기독교 민족운동 연구는 대체로 다음의 경향을 보인다. 한규무의 "한국기독교 민족운동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한규무, 2000: 75-107)에 의거하여 판단해 보자면, 그 주된 경향은 대체로 민족운동에서의 기독교 역할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모아진다. 대한 제국기에는 기독교는 독립협회와 신민회 활동과 기독교와의 관계를 구명하려고 하고, 일제강점기에는 3·1운동을 비롯한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제반 활동과 농촌운동, 절제운동, 물산장려운동 등의 애국계몽운동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서 기독교의 연관성을 해명하려 하고 있다. 그 결과 기존의 기독교 민족운동 연구는 기독교인이 참여한 항일투쟁 성격의 민족운동을 기독교 민족운동이란 범주로 설명하려는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듯하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 민족운동 연구가 해방 이후의 민주화 운동이나 통일 운동으로까지 확대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기독교 민족운동 연구의 다른 경향은 대체로 사례 연구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튼튼한 사례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그 역사적 실체가 분명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례 연구에 머물다 보면 서술의 일반화를 통한 역사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경향으로 인해 기독교 민족운동 연구는 역사적 실체에 접근하기보다는 분석적 개념에 머무를 위험에 빠지기 쉽다.

여기서 발견되는 문제점은 개별 사실에 대한 분석이 기독교 전체의 경향을 대변하는 것처럼 확대해석한다는 것이다. 한규무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성원한 우리땅, 독도
Dokdo forever
belongs to Korea

신사참배가 민족운동 차원에서 전개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없이 민족적 차원에서 항일투쟁의 성격을 띤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감리교와 장로교가 교단적 차원에서 신사참배를 공식 결정한 부분에 대한 역사적 평가 없이 신사참배를 거부한 일부 기독교인들의 행동만으로 민족운동의 일환이었다고 단정 짓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들은 무리 있거나 역사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 하겠다. 예컨대, 주기철 목사의 신사참배 거부는 신앙 지키기에 따른 부수적 결과라는 시각에서 본다면 신사참배 거부를 무리하게 기독교 민족운동의 맥락에서 파악하려는 시도는 역사적 실체로서 기독교 민족운동을 설명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신사참배를 민족운동의 성격으로 파악하려고 하기보다는 종교운동의 성격으로 다루려 한다는 점은 곱씹어 보아야 할 문제다.

3·1운동에서의 기독교 역할에 관한 평가에서도 똑같은 경향이 나타난다. 3·1운동에서 기독교는 최대의 민족종교임을 표방하는 천도교나 전통적 종교임을 자부하던 불교와 유교를 압도하였다고 강조된다. 그 이유를 가리켜 한국 기독교가 외래종교이기는 하였으나 반제국적 성격을 띠고, 일제의 침략에 처한 현실 속에서 민족과 고난을 함께 하며 조국의 독립을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김형석, 1986: 335-336). 그러나 일제 때 한국 기독교가 반제국주의적 성격을 띠었다고 역사적 서술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기독교가 제국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였고 그 이해도에 따른 기독교 행동이 일본의 제국주의에 대해 얼마나 저항적이었는가를 따져보아야 한다. 기독교인 민족 운동가들은 교회를 근거지로 삼기는 했어도 교회 밖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많았고, 주요한 교회 지도자 개인들이 일제에 협력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교단적 차원에서도 일제에 협력하는 결정을 한 적도 있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한국 기독교 전체가 반제국주의적 성격을 띠고 민족사에 역할을 한 것처럼 묘사하는 것은 정확한 역사적 서술이 아니다.

다른 문제점도 발견된다. 그것은 기독교가 민족운동에 참여 부분만이 개별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가려 시대적 흐름에 따른 기독교 안의 변화를 볼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민족운동의 참여에 관련된 기독교의 내적 논리는 무엇이었고 그 논리의 변화는 있었는지 또는 그 목표는 보편적 신앙과 모순됨이 없이 일관되게 추구되었는지 민족운동의 방법에 따른 기독교 내부의 갈등으로 표출된 쟁점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기독교 민족운동은 다른 세력의 민족운동과 비교하여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등등의 문제들이 살펴져야 한다. 그리하여 기독교의 민족운동 참여 구조와 논리가 규명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구는 별로 눈에 띠지 않는다. 이로부터 기독교 민족운동의 내적 논리나 목표에 관한 종합적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상에서 기독교 민족운동은 항일투쟁 성격의 것으로 한정되는 연구에 치중하게 되었고, 사례 연구에 치중함으로써 기독교의 역할이 확대 해석되거나 기독교의 내적 변화에 대한 전체상을 파악하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둘 때 기독교 민족운동은 새로운 각도에서 재조명되어야 할 과제로 인식된다.

이런 인식에서 출발하여 본고는 기독교 민족 운동를 연구하는데 있어 어떤 쟁점을 논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하고 한다. 첫째로, 기독교 민족운동 속에서 민족 문제에 관한 문제의식이 왜 중요한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로 한국에서 독특하게 발생한 기독교 민족주의 형성이 어떤 역사성을 지니는가를 다루고자 한다. 셋째로 기독교 민족운동의 구조와 방법론을 중심으로 수직적 또는 수평적 통합의 이중 과제를 어떻게 실현해 갔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는 실증적 연구라기보다는 기존 연구에 대한 재조명을 시도함으로써 새로운 학문적 과제를 찾는 것이다. 이러한 학문적 검토는 통일조국을 내다보는 현 시점에서 기독교가 통일을 향한 민족운동을 일으켜 감당해야 할 시대적 역할에 관한 역사적 실마리를 찾게 만든다.

독도는 우리땅
Dokdo forever belongs to Korea

II. 기독교 민족운동과 민족 문제

민족운동은 같은 민족이란 의식을 공유하고 민족 공동의 보편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일련의 정치 · 사회 집단적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에 입각한다면 우선 민족운동은 민족 문제에 논의와 민감하게 연루된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한국 근현대사의 민족운동이란 맥락에서 기독교를 논할 때 민족 문제에 대한 기독교 관점은 어떤 것인지가 파악되어야 하는 것이다.

민족 문제는 민족운동의 향방을 결정짓는 변수이다. 민족 문제를 어떻게 규정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느냐에 따라 민족운동의 성격이 달라진다. 자체 변혁적이냐 아니면 외세 지향적이냐, 우파적이냐 아니면 좌파적이냐, 진보적이냐 아니면 반동적이냐 또는 목적론적이냐 도구적이냐 등에 관련한 입장에 따라 민족운동의 성격이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 문제를 논하지 않고 민족운동을 논하는 것은 사건의 추이만을 아는 정도에 그치기 쉽다.

서양의 학계에서는 민족, 민족주의의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그 논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민족을 초역사적 상수로 볼 것인가 아니면 구체적인 역사 조건을 기반으로 하여 특정 시기에 출현하는 역사적 변수로 볼 것인가에 따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논의의 과정에서 그 논점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 이를 활용하면 민족 문제에 대한 심화된 접근을 할 수 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민족 문제에 대한 입장을 연구해서 얻은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것은 개인적 사상에 입각한 역사 현실에 대해 일정한 전망을 준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민족 문제에 대한 접근이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일관된 논리가 있다고 논의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실천적 관점에서 자본주의 사회구성체의 산물인 근대 민족에 집중하였다. 민족은 자본주의가 몰락하면

곧 소멸할 운명의 것이라고 본 그들은 자본 중심적 시각을 가지고 후진국 민족 문제를 주목하였다. 처음에 그들은 서구 식민주의가 정체된 아시아 사회에 자본주의적 진보를 가져올 것이라는 논리적 결론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역사 현실은 그들의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자 그들은 식민주의에 의해 자본주의가 확산되었다는 관점을 접고 그에 저항하는 식민지 민족운동이라는 면을 새롭게 부각시켰다. 이렇게 관점을 바꾼 그들은 아일랜드 민족운동이 영국 혁명을 분산시킬 것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에서 아일랜드 민족 해방 자체가 영국 혁명의 전제 조건이라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로써 그들은 유럽 혁명의 도구로서의 식민지 민족운동을 식민지 사회의 내부 혁명론 또는 자체 변혁론으로 탈바꿈시켰다(임지현, 1999: 87-118).

이런 예에서 정리할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민족 문제에 대한 입장과 그에 따른 역사적 적용에서 드러나는 모순과 한계 그리고 전환이라는 변화 과정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역사적 작업의 과제이자 역사적 해석의 초석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민족 문제에 대한 분명한 시각과 그에 따른 역사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추적하는 것은 기독교 민족운동 연구의 주요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서양의 학계에 비하자면, 우리 한국의 학계가 한국 근현대사에서 민족 문제와 민족주의에 관련하여 내놓은 성과는 매우 열악하다. 근현대사의 사실 자체가 구명되지 않은 부분이 적지 않고, 피상적인 이해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민족 문제가 근대화 문제와 함께 한국 근현대사에서 중심을 이루는 연구 주제라는 것이 인식되어 있으면서도 깊이 연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서중석, 1995: 111).

그런 가운데 제36회 전국 역사학 대회에서 '근대 국민국가와 민족문제'에 대한 공동 발표가 있었다. 여기서 한국에서의 민족 문제를 논한 서중석은 부르조아층 또는 지배층의 근대화 우선주의나 근대화 지상주의로 인하여 민족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았다는 논지의 주장을 폈다. 그에 따르면, 민족

Dokdo forever belongs to Korea 영원한 우리땅, 독도

문제에 대한 지배층의 입장은 개량적 민족주의라는 개념 하에 총괄하여 볼 수 있고, 한말부터 6공화국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연속성을 가진다고 평가되었다. 그의 논문이 비록 한국에서의 민족문제를 다룬 것이기는 하지만 부수적으로 기독교와 관련된 문제도 제기한다. 기독교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개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중석은 한말의 부르조아 근대화운동의 선구자이자 지도자로서 일제 때 또는 해방 후에 이르기까지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인물로서 유길준, 윤치호, 이승만, 안창호 등을 들었다. 그리고 이들은 기독교 신자였고 선교사들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서중석은 이들의 제국주의에 대한 관점은 유의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하였다. 그의 지적에 따르면, 윤치호는 기독교는 조선의 구원이요 희망으로 보았지만 기독교화 다음엔 일본화가 조선에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였다. 윤치호와 더불어 유길준은 임오군란 때 일본 정부에 대해 군대를 보내어 진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독립신문〉〉은 동학과 의병이 외국군대가 없었더라면 벌써 경성에 처 들어왔을 터이므로 외국군대 곧 일본 군대가 있는 것이 도리어 다행이라고 주장하였다. 안창호는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처하여 인민이 깨우쳐야 한다고 열렬히 애국연설을 하였으나 일제의 침략을 규탄하거나 일제의 '보호통치'에 대해 저항이나 투쟁을 호소하는 것에는 소극적이었고, "독립할 자격이 있는 민족에게는 독립국의 열매가 있고 노예 될 만한 자격이 있는 민족에게는 망국의 열매가 있다"고 말함으로써 침략이나 제국주의보다는 우리 자체의 잘못 때문이라는 논리로 이어지기 쉬운 주장을 하였다(서중석, 1995: 118-121).

이러한 서중석의 지적은 그동안 민족운동에서 기독교인이 했다는 긍정적 역할에 대한 평가와는 상당히 대조되는 것이다. 기독교 인사들이 민족해방과 민족통합에 기여했다고 자부하는 그동안 기독교계의 관점과는 반대로, 민족지도자로서 역할을 했다는 기독교 인사들의 행태가 민족 문제와 관련하여 볼 때 부정적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특정한 학문적 시각에 따른 하나의 견해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기독교계에서 논의되던 긍정 일변도의 평가는 좀 더 치밀한 근거와 이론에 기초하여 재고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사 연구회가 제36회 전국 역사학 대회에서 '근대 국민국가와 민족문제'를 공동주제로 택하면서 가진 문제의식도 기독교의 민족 문제를 연구하는데 수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역사학은 '무엇이 실제로 있었는가' 하는 경험적 인식방법과 '무엇이 있어야 하였는가' 하는 규범적 인식방법이 팽팽한 긴장으로 대립되면서 동시에 변증법적으로 통일되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전자에만 치우치면 '실제로 있었던 것'만을 정당화하는 현실추수주의에 빠지고, 후자에 치우치면 '마땅히 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없었던 것'을 보태는 주관적 관념주의에 빠지게 되고 결국 둘은 모두 현실 변혁의 어떠한 역사적 전망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역사학의 존재기반을 허물어 버리게 된다(한국사연구회, 1995: 3). 이런 문제의식에 비추어 볼 때 기독교 민족운동 연구는 후자의 길을 택해 왔던 것은 아니었는지를 반성적으로 고찰해 보도록 독려받는다.

그렇다고 할 때 민족운동에 뛰어든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족 문제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재검토해 보아야 한다. 개화파 기독교 인사들은 기독교를 통한 부국강병을 꿈꾸었지만 민족 문제 해결에서는 친일적이거나 일제에 대해 비 저항적이었고, 외세 의존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기독교계의 해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인 예로서 1907년 대 부흥운동으로 인한 한국 교회의 성장 이후 기독교인의 민족 문제에 대한 서술을 검토해보도록 하자. 일제가 선교사에 대한 정교분리 정책을 강요하고 그에 맞물려 일어난 1907년 대 부흥운동은 신앙에만 몰두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에 대해서 이만열은 한국이 식민지화되는 시기에 민족 문제를 외면토록 한 계기가 되었음직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이만열, 1991: 285). 서정민은 대 부흥운동 후의 한국 교회는 표면상으로는 일제가 지지하고 선교사층이 바라는 비 민족화의 경로를 밟

Dokdo forever belongs to Korea 영원한 우리땅, 독도

았다고 기술하였다(서정민, 1986: 278).

두 연구자는 각각 자신의 기술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해명한다. 전자는 선교사 지도부가 정교분리 정책을 내세우며 민족 문제에 대해서 거리를 두라고 한 지침과는 달리 한국인들과 직접 접촉하고 있던 일반 선교사들의 자세는 그렇지 않았다며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이만열, 1991: 285-287).[1] 그러나 그런 사례가 예외적인 것인지 보편적인 것인지에 대한 평가는 없다. 후자도 비슷하다. 대 부흥운동을 비 민족화의 과정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신민회, 105인 사건, 3·1운동을 증거로 들어 기독교가 비 민족화되지 않았음을 주장한다(서정민, 1986: 279). 이런 설명 역시 앞서 제기된 문제 제기에 충분한 답이 되지 못한다. 더욱이 그는 개화파의 선구들인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유길준 등이 기독교에 걸었던 문명적 희망은 독립협회 계 인사들의 것보다 구체적인 민족구국의 희망으로 진행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서정민, 1986: 283). 이런 서술도 이미 지적한바 개화파 기독교계 인사들이 민족문제에 관해 보인 애매한 태도에 관해 명쾌한 해명을 담지 해 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이 기독교 민족운동에 관한 주요한 두 연구에서 대 부흥을 겪은 기독교인들이 가진 민족 문제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의 것이며 그 관심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가 해명되어 있지 않다.

민족 문제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기독교인이 민족운동에 뛰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에 그치기 쉽다. 그것은 기독교인들의 참여만으로 그 운동을 기독교성을 띤 운동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실제로 3·1운동의 33인 민족 대표로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친일 행각을 한 기독교인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3·1운동을 그렇게 간단히 민족적이라고 단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특수한 사례로써 일반화를 시도하는 역사적 설명은 재

1) 평양에서 대 부흥운동을 체험했던 블레어(W. N. Blair)는 악화되어 가는 한일관계를 하나님과 인간과의 신앙의 관계에서 파악 해결해야 할 것은 느낀다고 말함으로써 선교사들이 민족문제로서의 한일관계 인식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었음을 드러내었다(이만열, 1986: 248-249).

고되어야 하고, 민족 문제에 관련하여 일관된 역사적 분석틀을 가지고 기독교 민족운동은 재평가되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맥락에서 김권정은 기독교 세력의 민족문제에 대한 인식을 진일보한 관점에서 다루었다. 그는 3·1운동 이후 기독교 세력의 민족운동을 논하면서 그들의 민족 문제 인식을 논하였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세계개조론의 입장에서 정의와 인도에 기초한 민주주의를 지향하였고, 일제의 식민수탈정치의 강화로 말미암아 사회경제문제를 인식하며, 민족의 실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실력양성론을 주장하였다. 민주주의의 추구가 세계개조의 이상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인식하면서도 현실의 자본주의 제도의 모순들을 지적하였던 기독교 세력은 자주적인 힘으로 건전한 자본주의 수립을 꿈꾸었다. 이런 인식 속에서 그들은 사회개조론을 들고 나왔다. 거기에는 제국주의적 강권 지배를 거부하고 정의와 인도에 의해 지도되는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자는 현실적 지향이 담겨 있다. 이러한 사회개조론은 현실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이면서도 점진적인 사회구원의 의미로 수용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사회개혁 이전에 개인이 먼저 개혁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깔고 있어 사회 개조에 앞서 개인의 양심개발과 사회도덕의 개량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김권정, 2000: 9-15). 이 연구에서 주목되는 점은 기독교 세력이 민족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세계개조의 방향 설정과 더불어 실천 의지를 보였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해명한 것이다. 민족 문제 해결에 있어 기독교 민족 운동가들의 태도는 개량주의적이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기독교 내적 논리에 의해 민족 문제의 해결 방향을 잡았다는 점은 평가되어야 한다.

기독교 민족운동에서 민족 문제와 관련한 기독교인들 나름대로 노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해방 이후의 국민국가 건설과 분단 시대의 민주화 과정과 통일운동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별로 없다. 생각해 보면, 해방 이후 기독교 민족운동의 맥락에서 볼 때 민족 문제와 관련하여 구명되어야 문제들은 적지 않다. 해방 이후 국민국가를 건설할 때 기독교는 민

독도는 우리땅, 독도 Dokdo forever belongs to Korea

족 문제를 어떻게 보았는가? 남북에 각기 다른 세력이 들어와 있을 때 기독교는 그 현상을 어떻게 파악하였고 민족 문제와 관련된 자기 논리를 개발하였는가? 그 논리로 어떤 역할을 했는가? 분단 상황에서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기독교는 민족 문제에 관심을 가졌는가? 그 관심은 이데올로기적이었는가 아니면 민족적이었는가? 그것도 아니라면 기독교의 세계보편주의에 따랐는가? 더욱이 통일 문제에 직면해서 기독교 안에 남북을 하나로 보려는 민족 관념이 있었는가? 남북을 화해시키기 위한 기독교적 접근은 있었는가?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극히 미비하여 제대로 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반 학계의 형편도 그렇지만 기독교 학계의 형편은 더욱 열악하다고 하겠다.[2] 시대마다 변화한 민족 문제의 실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 속에 기독교가 펼친 민족운동에 담긴 역사적 의의를 드러낼 연구 성과가 절실히 요청된다. 시대에 따라 변하는 역사 현실 속에서 어떻게 민족 문제를 정리해 내고 그에 따라 어떤 역사적 실천을 행했는가를 해명하는 것은 기독교 민족운동의 역사적 실상에 좀 더 근접하게 만든다.

III. 한국의 기독교 민족주의

민족 문제에서 민족주의라는 주제로 넘어가면 그 논의의 양상은 더욱 복잡해진다(임지현, 1999: 21-47). 그렇지만 일반적인 합의에 따르면, 한국 근현대사를 끌어간 동력은 민족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민족 공동의 보편적 목표를 추구하는 노력으로서 민족운동과 민족주의를 연결시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임지현에 의하면, 사회적 총관계의 관점에서 민족주의는 특정한 사회 계

2) 이런 점에서 김경재, "분단시대 기독교와 민족운동," 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편, 『민족주의와 기독교』, 서울: 민중사, 1981, 102-123은 주목할 만한 하다.

급의 이해를 대변하면서도 초계급적 이데올로기라는 점에 변증법적 특징이 있다고 보았다. 민족 공동체의 사회적 총 관계와 계급적 역학 관계에 따라 민족주의의 사회적 이념의 내용은 바뀌지만 언어, 문화 등을 통해 민족 내 집단의 자기 정체성을 영속적으로 확인코자 하는 원초적 욕구가 존재하는 한, 민족주의는 항상 계급적 공동체라는 외피를 둘러쓰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족주의 지도자들이 제시하는 이념이나 슬로건에 집착한다는 것은 종종 민족주의의 역사적 실재와 그만큼 동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것은 곧 그 민족주의의 사회적 실재를 감추고 있는 이념적 외피를 분석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임지현, 1999: 48). 이런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기독교 민족운동 연구에서 지도자들의 이념이나 슬로건에 입각한 분석을 기초로 한 일반화는 지양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독교 민족주의자로 알려진 윤치호나 안창호 또는 이승만 등이 내세운 이념들을 통해 기독교 민족주의 운동, 더 나아가서 한국 민족주의 운동의 정체성 내지 의미를 일반화하여 서술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알고 민족주의 역사적 실재를 밝혀낼 수 있는 접근을 시도해야 하는 것이다.

이 점을 전제할 때 기독교 민족운동 연구의 초점은 민족운동의 지도자가 내세운 이념은 물론이고, 기독교인 참여 및 활약상에만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 그 초점은 기독교 민족운동으로 드러나는 기독교 내적 원리의 적용과 그 실질적 성과에 맞추어져 할 것이다. 그것이 기독교 민족운동의 성격을 규명하는 중요한 준거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민족주의에 대한 이론은 지구상의 각 민족이 겪은 역사적 경험만큼 다양하다. 각국의 개별 민족주의에 대한 사례 연구가 꾸준히 축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추상 개념으로서의 민족주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민족주의 연구자가 겪는 이러한 어려움은 그 뿐만이 아니다. 그것은 민족주의의 고유한 이념적 특수성 때문에 더 가중된다. 이데올로기로서 민족주의는 자기 완결적 논리 구조를 갖추지 못하는 특성으로 인해 다른 사회 이데올로기와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Dokdo forever belongs to Korea 영원한 우리땅, 독도

민족주의의 이념적 가변성에 주목하여 민족주의를 이차적 이데올로기라 부르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이다(임지현, 1999: 24). 이러한 민족주의를 설명함에 있어 민족주의를 하나의 그릇이라고 비유한 김영한의 지적은 매우 적절하다(김영한, 1995: 210). 민족주의라는 그릇 속에는 필요에 따라 어떠한 이념이라도 담을 수 있다. 민족주의가 보수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등 어떠한 이데올로기와도 쉽게 결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민족주의의 등장은 조선왕조의 전통적인 정치,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외세에 대한 반작용의 결과였다(Robinson, 1990: 35). 이것은 개신교의 등장 이전의 일이다. 그런데도 기독교가 마치 민족주의를 선택한 것처럼 묘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오히려 그 반대다. 한국 민족주의에게 한국 기독교가 선택받은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민족운동에서 기독교가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주장은 일방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민족주의 발전에 기독교의 공헌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역사적 평가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독교에서 한국 민족주의가 나왔다는 식으로 주장함으로써 민족주의를 기독교에 종속시키려 하는 것은 도를 넘는 일이다.

여기서 보편적 이념을 추구하는 기독교 정신으로 어떻게 민족주의라는 특수성을 좇을 수 있었는가의 문제에 직면한다. 이에 대한 해명이 중요한 것은 정체성에 대한 숙고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웰즈(Kenneth M. Wells)의 시도는 매우 신선하다. 그는 상호 갈등을 이루는 개념들인 민족, 국가, 그리고 종교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해명을 시도하였다.

웰즈에 따르면, 서구의 민족주의는 특수를 지향하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종교로서 어거스틴 개념의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어거스틴은 로마제국의 임박한 붕괴라는 위기 상황에서 기독교 신앙공동체의 우주적 역할을 발굴하여 알린 인물이다. 그가 관심을 가진 공동체는 성장하는 기독교였다. 이것은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이점이 가진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전개한 팽창하는 공동체란 기독교의 개념은 우주적 야망을 지니는 것으로서 인종적, 종족적

또는 지리적 경계를 설정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근대의 민족주의는 대부분 위급한 역사적 정황에서 정체성을 숙고하는 데서부터 발생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서구의 민족주의는 어거스틴 개념의 기독교를 수용하였다. 이로써 상호 모순되어 보이는 양자가 상호 협조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많은 서구의 기독교 사상가들은 기독교를 민족과 국가와 동일화하는 것과 그런 동일화에 교회가 후원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였던 것이다. 개신교 사회과학자 엘룰(Ellul, J.)과 가톨릭 철학자 마리땡(Maritain, J.)은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지만 민족주의를 반대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치하였다. 엘룰은 민족주의를 우상숭배로 여겼으며 마리땡은 민족주의를 역병이라 불렀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칼 바르트나 본 회퍼도 같은 맥락에서 교회와 민족국가의 동일화를 비난하며 기독교 신앙의 보편성을 되찾고자 하였다(Wells, 1997: 14-16).

이런 사실에 주목한 웰즈는 그동안의 민족주의 연구에서 빠져 있는 개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논리적으로는 자기모순으로 보이는 기독교 민족주의라는 낯선 개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웰즈의 연구에 따르면, 종교와 민족주의 사이의 공존 가능성은 이슬람 민족주의와 폴란드의 가톨릭 민족주의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아시아에서도 종교적 운동과 동일시되는 민족주의 운동이 그 희귀하지 않다는 것이다. 식민체제 하에 있는 종교집단은 특별히 야만과 착취가 성행하는 곳에서 민족주의자들의 목표를 공유하기 위한 도덕적 근거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도 민족주의와 종교가 동맹을 맺는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좀 더 설명하자면, 식민주의를 반대하기 위하여 제시되는 이유들뿐 만 아니라 채택하는 방법들에서도 사람들은 종교와 민족주의 진영 사이에 어떤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종교와 민족주의 사이에 동맹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종교가 민족국가의 원리를 그 신조의 일부분으로 채택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민족주의의 한 표현이 되든지 아니면 민족주의와의 관계에서

Dokdo forever belongs to Korea 영원한 우리땅, 독도

많은 갈등을 빚어낼 그 자신의 제안을 제시하든지 둘 중 하나가 된다는 것이다(Wells, 1997: 19-20).

이러한 웰즈의 고찰에 입각하여 볼 때 한국 기독교 민족운동은 어떤 성격의 것으로 출발했는지 궁금해진다. 기독교인이 민족운동에 투신한 것에 대한 기존 연구의 서술은 대체로 민족적 상황에 대한 운명적 귀결처럼 설명된다. 민족 교회론의 기수인 민경배는 기독교는 원래 십자가의 희생적 구속 교리와 정신적 가치의 역사관 교리가 있고 그것이 발전해서 민족 신앙으로 형성되어 가게 되어 있지만 한국 기독교는 일제 침략이라는 역사 조건 아래서 자연 민족운동의 형식을 취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민경배, 1991-1: 199-120).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의 신진 학자들은 반봉건성과 반외세라는 역사적 당면 과제 앞에서 기독교는 그 존립을 위해서도 민족운동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고 기술하였다. 또한 그들은 비기독교 국가인 일본에 의해 식민지화된 것도 한국 기독교가 민족운동에 뛰어들 수 있는 한 요인이라고 밝히고 있다(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1989: 292). 이런 설명들은 한국의 기독교가 민족운동에 뛰어들게 된 외적 동기만을 설명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내적 동기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다.

역사적 서술의 목적은 단순히 외적 현상을 묘사하는 데만 머물 수 없다는 것이 현대 역사학계의 합의된 경향이다. 그렇다고 할 때 기독교인들의 민족운동에의 투신에 관련한 내적 동기나 특성도 구명해 내야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 내적 동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 기독교의 애국애족주의에서 그 동기를 찾고 있다. 민경배는 기독교인의 집과 교회에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다는 1895년 북 장로교 선교보고서를 인용하면서 한국의 교회는 한국을 백성에서 민족으로 형성시켜가고 있다고 썼다(민경배, 1991-2: 216). 신기영도 그런 기록에 근거하여 한국 기독교와 민족주의와의 연계를 지적하였다(신기영, 1995: 28-29). 이는 민족주의에 대한 느슨한 이해에서 오는 판단이라 할 수 있겠다. 이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민족주의 이론가들의 대체적인 합의에 의하면, 애국주의가 민족주의로 발전하는 것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도움을 통해서라고 한다. 이런 합리적 설명 없이 단순한 애국주의를 민족주의로 언급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 점에서 웰즈의 문화사적 접근은 인상적이다. 그에 따르면, 한국의 민족주의는 외적 압력에 의해 자극, 촉진되었다는 태생적 원인으로 인해 외래 사상과 쉽게 제휴하였다. 외래 사상이 야만적이라 무시되지도 않았고, 문명에 대한 전통적인 이념에 흡수되지도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문화발달의 심각한 양면성이 불가피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개신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새로운 보편적 체계인 기독교적 이념 위에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명감을 높였다. 자아 개조 성격의 개신교인들은 민족 국가는 본질적으로 세속적 실체라는 견해를 받아들여 민족 곧 국가라는 공식 자체에 대해 논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Wells, 1997: 269). 결국 한국 기독교는 식민 상황에서 새로운 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수용되어 한국 기독교 민족주의를 형성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방 이후에 기독교 민족주의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가? 먼저 민족주의에 대한 실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식민지하에서 민족 공동의 목표는 분명하다. 그것은 민족의 해방과 함께 국민 국가의 건설에 모아진다. 그 목표는 민족 공동의 것이기 때문에 초계급적인 성격을 띠는 것은 당연하다. 그럴 때 민족주의는 목적의 이데올로기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민족 해방이란 공동의 목표가 달성되면 민족주의 자체가 그 국가와 민족의 지상 목표가 될 수 없다. 이때 민족주의는 목적의 이데올로기에서 수단의 이데올로기로 바뀐다(김영한, 1995: 210). 목적 달성에 의한 민족주의의 목표 수정이 일어난다면 기독교 민족주의도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민족의 목표에 달려 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기존의 기독교 민족운동을 반추해 보고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한 역사적 과제임에 틀림없다.

해방 이후 한민족 공동의 목표는 민족 통합의 과제에 모아진다고 하겠다.

Dokdo forever belongs to Korea 영원한 우리땅, 독도

민족 통합의 과제에 직면하여 한국 사회는 분단 논리의 극복과 통일 논리의 도출 및 적용이라는 과제에 직면해 왔다. 그러나 그 현실적 대응 양상은 분열적이었다. 분단 시대에는 반공이데올로기가 전면에 내세워졌고, 그래서 민족 통합의 과제 앞에 반통일적 논리가 지배적이었다. 통일 시대에 대한 전망이 점점 더 커지는 현실에서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힘의 논리가 더 우세한 형편이다. 이로써 보건대, 통일 문제를 고려할 때 민족주의가 남북의 접근을 촉진시키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그렇다고 민족주의만으로 통일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더 중요한 것은 민족주의 안에 담을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데올로기인가에 대한 결정이다. 통일 국가의 체제가 자본주의인가, 사회주의인가, 아니면 제3의 다른 체제인가에 대한 명시적 또는 암묵적 합의 없이는 통일이 쉽게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김영한, 1995: 210).

이렇다고 할 때 기독교 민족운동의 연구 방향은 민족 해방과 그에 뒤이은 민족 통합이라는 민족 공동의 목표를 향한 기독교 민족운동의 역할에 대한 쟁점들에 모아진다. 기독교 민족주의가 다종교, 다문화 상황 속에서 일정한 한계를 안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역사적 기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시대 속에서 기독교가 민족운동의 동력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민족주의를 동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한 아니라면 어떤 기독교의 동력으로 통일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풀기 위한 역사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는 기존의 밝혀진 사실들과 새로 발견될 사실들 사이의 불거져 나오는 역사 해석적 작업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한 기독교 민족운동의 실천은 한국 기독교 민족주의는 새로운 역사적 형태를 취하게 만들 것이다.

IV. 한국 기독교 민족운동의 구조와 방법론

한국 기독교 민족운동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성격을 달리하며 이어져 왔다. 식민지 치하에서는 민족해방운동을 비롯하여 문화운동, 농촌운동 등으로, 해방 이후에는 근대화운동, 민주화운동, 통일운동 등으로 그 명맥을 이어갔다. 이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일제시대에 모아져 있고 그 전반에 대한 연구도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이 주목해야 할 연구 과제는 한국 기독교 민족운동의 구조와 논리에 관해 규명하는 일이라 생각된다.

먼저 민족운동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축에 대한 사회사적 분석이 요구된다. 첫째 수직축의 통합 메카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운동 주체가 제시하는 민족 강령이 여타 사회 계급 및 집단의 물적 이해를 어느 정도 담보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수직적 통합'의 강도는 기본적으로 운동이 사회적으로 다양한 물적 이해를 반영하는 정도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이다. 둘째, 수직축에서의 민족 통합이 진전됨에 따라 지역적 차별성이 극복되면서 전국적 규모의 계급 연대 즉 각 계급 내부에서의 '수평적 통합'이 이루어진다. 많은 경우 이 '수평적 통합'은 첨예한 계급갈등을 낳음으로써 민족 통합의 구심적 경향에 맞서 민족운동을 해체하는 원심력으로 작용한다. 이때 민족 문제에 얽혀 있는 사회 문제의 고리를 운동 주체들이 어떻게 푸는가에 따라 민족운동의 향방은 크게 달라진다.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은 결국 각 민족운동의 사회적 토대에 대한 분석이라는 문제로 귀착된다. 이는 곧 민족운동의 구조를 해명하는 작업이 된다(임지현, 1999: 38).

이러한 지적은 한국 기독교 민족운동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 기독교 민족운동은 수직적 통합과 수평적 통합이라는 이중의 과제를 어떻게 수행해 갔는가를 물어야 할 것이다.

한국 근대 민족주의는 두 가지 흐름으로 파악된다. 하나는 지식 엘리트에

독도는 우리땅
Dokdo forever belongs to Korea

의한 것과 다른 하나는 민중에 의한 것이다. 이 두 세력이 수십 년에 걸쳐 결합함으로써 형성된 것이 근대의 한국 민족주의라는 것이다. 1910년까지 민족주의 엘리트에 의한 민중동원이 가능할 만큼 반일 감정이 무르익었고, 합일합방이 된 후에는 한국 민족주의는 독립회복에 바쳐졌다. 그러나 민족주의 에네르기를 반일운동으로 이끌어갈 어떤 단일 정강도 단일 집단도 등장하지 않았다(Robinson, 1990 35-36).

민족주의 지식 엘리트 가운데 많은 이들이 유학을 한 기독교인이었다. 이들을 길러낸 산실은 기독교 학교였다. 여기서 기독교 영향을 받은[3] 그들은 기독교라는 틀 안에서 지식 엘리트와 민중을 통합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었다. 기독교인이었던 민족 지도자들은 이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기독교인들에 의해 움직여진 민족운동 단체의 강령에는 그것이 잘 드러나 있다.

1907년 창립된 항일단체인 신민회는 다음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전개하였다. 첫째 국민에게 민족의식과 독립사상을 고취할 것, 둘째 동지를 발견하고 단합하여 국민운동의 역량을 축적할 것, 셋째 교육기관을 각지에 설치하여 청소년의 교육을 진흥할 것, 넷째 각종 상공업 기관을 만들어 단체의 재정과 국민의 부력을 진흥할 것 등이다. 이것의 궁극적 목표는 한국의 부패한 사상과 습관을 혁신하여 국민을 유신하며 쇠퇴를 유신하여 유신한 국민이 통일연합 하여 유신한 자유문명국을 성립하는 것이었다(윤경로, 1986: 291). 이러한 기독교 민족운동의 기본 구상은 신국민의 육성과 실력양성을 통해 독립된 자유문명국, 자본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장규식, 2001: 102).

이처럼 기독교 민족운동의 목표는 민족 공동의 목표로 삼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었다. 이런 것은 후에 결성된 흥업구락부의 정강과 진행방침에

3) 이들이 받은 기독교 영향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야 그가 기독교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에 대한 의미 있는 평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도 나타나 있다. 그것은 첫째 민족관념을 보급하고 조선독립을 도모할 것, 둘째 단체 행동을 실행할 경우에는 단체의 지도자에 복종토록 할 것, 셋째 산업발전과 자급자족에 노력하도록 할 것, 넷째 계급과 종교 및 지방적 파벌을 타파하여 민족적 대동단결을 기할 것, 다섯째 조직의 목적을 설명, 상대방을 선도 혹은 설복시켜 동지를 확보할 것, 여섯째 교양 사업 즉 학교 또는 문화단체의 민족 계몽강연회 등 개최에 진력할 것으로 되어 있다(김권정, 2000: 153). 신흥우는 신문조서에서 대업을 일으킨다는 것은 조선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럼으로써 그는 그 단체의 목적을 민족 공동의 목표를 지향함을 보여주었고 상호부조를 강조하였다. 그는 진술하기를, 파벌투쟁의 멸절을 높이 부르짖고 있는 점에서 흥업구락부와 동지회의 정신이 같다고 함으로써 그 민족 통합의 의지를 내비쳤다(김승태, 1994:. 368, 371).

그러나 그러한 기독교 민족운동이 그 목표를 성취하지는 못하였다. 그 근본 원인은 일제의 조직적인 탄압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원인을 외부에만 돌리기는 어렵다. 신민회 안에서도 노선 차이로 인한 분열 조짐이 있었고 실제로 분열되었다. 윤경로는 그 점을 지적한다. 신민회는 초기부터 군인출신 이동휘, 이갑 등의 강경론자와 안창호, 이승훈, 전덕기 등의 온건론자 사이에 견해차가 보였고, 한일 합병이 임박하면서 지도자들이 국외로 망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조직이 재편되었다. 그 직후 중국 산동성 청도에 회담을 가졌을 때 이동휘를 중심으로 한 '급진·실력행동파'와 안창호를 중심으로 한 '점진·실력양성파'로 노선 분열이 일어나고 말았고 급기야는 각자의 투쟁방식을 가지고 분산행동을 취하게 되었다(윤경로, 1986: 292). 그리고 일제에 의해 105인 사건의 조작이 일어나 그 조직 해체를 조기에 맞이하였고, 단일 조직 내의 통합의 기회마저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것은 역량 제고의 실패로 이어져 결국 기독교 세력의 통합 능력이 형성되지 못한 것은 아니었는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기독교 민족운동 세력이 민족적 통합 능력을 함양, 실천할 수 있는 기회

Dokdo forever belongs to Korea 영원한 우리땅, 독도

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능력을 성공적으로 발휘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그런 기독교가 3·1운동 직후 조직정비를 통해 민족운동 역량을 회복하던 중 사회주의 세력의 반기독교운동의 역풍을 맞았다. 이에 양측 간의 충돌도 빚어졌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기독교인들은 법적으로 고소하여 사회주의 세력들을 체포, 투옥되게 함으로써 더욱 갈등을 심화시켰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운동의 타당성을 일부 인정하는 입장도 있었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 같은 반기독교운동을 무절제한 행동, 경거망동, 몰상식한 행동이라고 일축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그 대응방식은 문서 활동을 통한 사상 논쟁으로 모아져 기독교사회주의와 사회복음주의를 수용하는 가운데 사회주의 사상을 극복하는 쪽으로 나아갔다(김권정, 2000: 49-65). 이것은 탈식민지 논리로서 등장한 첫 번째 사례였다.

그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세력의 대처방향은 내부지향적이었다. 다른 세력을 향하여 '교회화' 또는 '기독교화'를 지향하는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다(김권정, 2000: 59) 이는 민족 통합을 향해 나아가게 하기보다는 자기중심적이 되게 함으로써 다른 세력들을 떨어져 나가게 하는 원심력으로 작용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기독교 세력은 상대를 굴복시키거나 배척하는 방향으로 갔고 그것은 결국 기독교 세력이 민족 통합을 이루어내는 길로 가지 못한 주요 원인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만든다.

기독교 민족주의 세력 중 일부가 사회주의 세력과 함께 신간회 결성에 참여하였다. 이것은 다른 세력과 결합하여 기독교 내부만의 논리를 민족 차원의 논리로 승화시켜갈 수 있는 기회였다. 사실상 신간회는 기독교 단체나 교회에서 다룰 수 없던 것을 활동 내용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신간회는 일반 대중에게는 물론이고 기독교인들에게도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 민족의식과 정치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었다(김권정, 2000: 112). 그러나 신간회에서 기독교 세력 중 일부가 빠져나감으로써 신간회 내에 기독교 세력의 입지는 약화되었다. 그러자 기독교 세력은 사회주의 세력과 견제를 위한

정치 싸움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신간회 밖에서의 활동에 더 집중하였다.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기독 신우회였다. 기독교 세력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기독신우회의 결성은 단기적으로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다. 신간회의 주도권을 장악하였고 힘을 받으며 민중운동까지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종국적으로는 축소되는 결과로 끝났다. 그 제일 원인은 일제 탄압에서 찾을 수 있지만 그 주요 원인은 민족적 역량을 결집시키는 데 세력들 간에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독교계의 민족적 역량 부족은 한국전쟁 이후 분단이 고착된 상황까지 이어져 민주화 및 통일 운동에 관련한 기독교계 안에서 나타나지 않았는가 한다. 이 점은 실증적 사실 규명 속에서 심도 깊게 검증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민족운동을 전개함에 있어 실패의 경험을 가졌다. 이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민족 통합의 역량을 키우는 것은 중요하다. 기독교 민족운동의 민족적 역량은 그들이 제시하는 논리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게 제시된 논리가 과연 기독교 정신에 입각했는가 아니면 역사 현실의 특수 상황에 입각했는가에 따라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런 현실 논리로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국제 관계나 민족 상황의 물적 토대와 같은 적정한 기준에 의한 평가도 동반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 비추어 기독교 민족운동의 논리나 방법론이 재검토된다면, 기독교 민족운동의 한계와 약점이 밝혀질 것이고, 통일 운동에서의 기독교 논리 개발에 의미 있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3·1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한국 민족주의 운동은 암흑기를 보냈다. 그러나 3·1운동 직후 상해 임시정부가 결성되고 임시 정부의 기치 아래 주요 망명 지도자들이 모였다. 분쟁이 없지 않았지만 상해 임시정부는 희망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외교 전략의 실패는 분열의 계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망명 활동은 광범한 전선에서 활발해졌다. 그래도 그들의 분열 상태는 극복되지 않았다. 3·1운동 이후 일본은 문화정치로 바꾸었고, 이로 인해 생긴 단체와 언론에 관한 이점을 활용하는 일이 생겼다. 그것은 망명 활동가들을 국내로

Dokdo forever belongs to Korea 영원한 우리땅, 독도

끌어들인 효과를 낳았고 그들은 단체 활동을 활발히 벌여 지적, 정치적 분위기를 바꾸었다(Robinson, 1990: 83-87). 이로써 일어난 민족주의는 문화적 민족주의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민족주의는 식민지 시대 이전의 개화사상과는 다른 역사 조건 속에서 찾는 돌파구였다. 문화적 민족주의자는 비난할 전통적인 정치 체제가 없어 실패의 책임은 민족주의 운동으로 직결되었고, 민족적 단합의 상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왕조라는 잠재적 가능성도 없었다. 나아가 일본 식민 정부는 경제적 근대화를 통제하려 하였고 그로부터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이 민족주의자들에게는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여기에 사이토 총독의 문화정치 정책이 나오자 문화적 민족주의의 점진론자들은 사회변화 방법론을 민중의 민족주의 의식을 고취하면서 새로운 가치와 기술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과 계몽사업을 펴는 것에서 찾았다(Robinson, 1990: 121-122). 기독교 민족운동도 그런 흐름을 따랐다. 그것은 무장투쟁에 대한 일제의 강력한 탄압을 피하고 나름대로 생존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이로써 기독교 민족운동은 문화적 민족주의라는 논리에서 힘을 받아 전개되어 갔다.

그러한 문화적인 계몽운동 전략이 식민지 통치를 외면하고 단순히 계몽활동에만 관심을 돌리는 변절 행위로 보는 비판이 없지 않다. 송건호는 그것을 민족 광복 투쟁에서 탈락한 것으로 평가한다(송건호, 1981: 100). 그러나 이것도 일방적이라는 이견이 있다. 김권정의 지적대로, 일반 연구들은 무력에 대한 독립운동만이 적극적이고 올바른 민족운동이란 관점에서 기독교 세력이 대체로 비폭력적으로 전개한 민족운동을 소극적인 민족운동으로서 과소평가하거나 민족운동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따라서 김권정은 일제의 억압은 정치적 면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었고, 모든 면에 총체적으로 가해졌다고 말한다. 그것은 정치적 독립 주권에 대한 억압이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에 대한 자본주의적 수탈이었으며 한국민들의 의식을 일본화 하여 예속화하려는 사회, 문화, 정신, 종교에 대한 억압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억압에 맞서 저항한 방식

이 폭력적인 강경노선이 아니라 비폭력적인 온건 노선이라고 해서 그것을 결코 과소평가하거나 이를 민족운동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치다 하겠다. 폭압적인 일제 식민지 상황에서 민족운동의 수단으로서 폭력적 방식도 필요했겠지만 비폭력적 방식도 필요했다고 보는 것이다(김권정, 2000: 177). 이것은 단순히 기독교가 비폭력적인 경향이 있어서라고 만 할 수 없다.

기독교 안에서도 무력저항운동이 있었다. 그것이 비록 기독교 교리와 신학적 입장에 비추어 기독교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민경배는 기독교무장저항의 한계의 첫 번째 이유로서 칼을 쓰는 것이 복음의 핵심에 당장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민경배, 1991-1: 216). 그럼에도 기독교 무력저항운동은 제국주의 침략이란 역사적 조건 속에서 대응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하는 기독교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종교성 쪽보다는 정치성 쪽으로 기울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1989:. 333). 기독교인의 무장저항을 단순한 교리 적용으로 평가하는 것은 엄연한 역사 현실을 외면한 것이자 명확한 역사적 평가를 저해하는 것일 수 있다.

여기서 기독교 민족운동의 방법론에 대한 적절한 평가 잣대가 무엇이냐는 문제에 직면한다. 기독교 민족운동의 전개 방법을 새롭게 찾아내어 적용하며 그것의 역사적 위치를 자리매김해 내야 하는 과제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다. 이는 민족 해방 및 민족 통합을 향한 기독교 민족운동 내의 논리에 관해 재검토하도록 이끈다. 기독교 민족운동의 개량주의적 재편으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표면화된 논리들이 있다. 국권회복을 위한 무형자강 및 종교입국의 논리, 기독교 민족사회운동의 논리, 자유주의 국가건설의 논리에서부터 실력양성론을 통한 민족경제건설의 논리 및 자본주의 근대화의 논리, 농촌재건의 논리에 이르기까지 여러 논리가 있는 것이다. 이런 논리들이 단순히 소개되는 것에서 벗어나 그 논리들의 역사적 맥락에서 지닌 가치와 의미를 다층적으로 파악해 내야 한다.

이런 면을 감안할 때 웰즈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Dokdo forever belongs to Korea 영원한 우리땅, 독도

라 하겠다. 한국 민족주의 맥락에서 기독교 민족주의라는 독특한 성격을 규명해 낸 그는 기독교가 도덕윤리를 제공하였음을 평가하고 한국의 기독교 민족주의의 성격을 '자기 개조적' 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처럼 명칭을 부여하여 특징을 개념화 하는 작업은 기존의 한국 민족주의에 대한 접근이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는 것에 그친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한국 기독교 민족운동에 관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정확한 운동의 논리와 방법론을 파악하는 가운데 균형 잡힌 역사적 성격을 구명해 내는 일에 역량을 더 모아야 한다. 더 나아가서 겉으로 드러난 사건들 이면에 숨겨진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의 역학 관계에 얽힌 역사적 진실을 밝혀내는 작업을 통해 역사의 재구성을 시도하는 일도 필요하다. 아울러서 통일의 과제와 통일 시대 이후에 적용될 논리와 방법론에 대한 연구도 필요함은 두 말할 것도 없다. 기독교 민족운동은 현실 변화와 함께 끊임없이 새로이 이루어져야 그를 통한 새로운 역사 현실에 적절한 대응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할 것이다.

V. 맺음말

기독교의 민족운동에 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한국 기독교의 민족운동에 연관된 쟁점을 살펴보았다. 민족 문제, 기독교 민족주의, 기독교 민족운동의 구조와 방법이 그것이다. 그런 가운데 기독교가 관심을 보인 민족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었고, 일면 모순적인 기독교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할 것이며, 기독교가 추구한 민족운동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기독교 민족운동에 대한 연구가 시기와 주제에 있어 한계를 안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 민족운동이란 개념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고 그에 대한 역사적 서술 역시 느슨한 일반화의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역사 연구의 진전을 이루면서 역사적 반성이 일어나고 그와 함께 시대적

과제에 대한 각성도 일어나는 것이 시대마다 목격되는 현실이다. 이 점을 감안할 때 기독교가 민족운동의 흐름 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감지해 내고 미래지향적 차원의 민족사 속에서 감당해야 할 구체적인 역할을 찾아내어 실천해야 할 시대적 과제를 도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것은 역사 연구와 역사적 행동을 통해 이루어가는 하나의 역사 만들기로서 시대적 책임이기도 하다.

기독교는 민족운동을 통해 민족 통일에 대한 공헌을 할 수 있는 역사의 문 앞에 서 있다. 이 시점에서 기독교는 민족 문제에 대해 기독교가 추구해야 할 민족 공동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기독교 민족주의라는 틀이 필요한가 아니면 그 대안으로서 다른 틀이 필요한가에 대한 현실적 관점을 제시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기독교 민족운동이 민족사와 세계사 속에 역사적 기능을 하게 하는 논리와 방법의 개발이 절실하다.

하나의 사회 세력으로서 기독교는 다른 세력과의 대립과 협력의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기독교는 그 나름의 쟁점을 찾아 답을 제시하며 기독교 민족운동을 전개해 왔고 전개될 것이다. 이런 활동은 역사 속에서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일 뿐 아니라 인류 평화라는 세계사적 과제와 연결되는 것이기도 하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은 세계 평화라는 현 시대의 핵심 과제에 다리를 놓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기독교의 보편적 이상과도 통하는 일로서 한국 기독교가 놓칠 수 없는 한국 기독교의 학문적 과제이자 시대적 책임이다.

참고 문헌

김권정 (2000), "1920-30년 한국기독교인의 민족운동 연구," 숭실대 박사학위 논문.
김승태 편 (1994), "흥업구락부 사건 관련 신흥우 신문조서," 『한국기독교의 역사적 반성』, 서울: 다산글방.

Dokdo forever belongs to Korea 영원한 우리땅, 독도

김영한 (1995), "종합토론 – 근대 국민국가와 민족 문제," 한국사연구회 편, 『근대 국민국가와 민족문제』, 서울: 지식산업사.
김형석 (1986), "한국 기독교와 3·1운동 – 서북지방의 기독교 민족운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 기독교와 민족운동』, 서울: 종로서적.
민경배 (1991-1), 『일제하의 한국기독교 민족신앙운동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민경배 (1991-2), 『한국기독교회사 – 한국민족교회 형성과정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노치준 (1995), 『일제하 한국기독교 민족운동 연구』, 서울: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송건호 (1981), "일제하 민족과 기독교," 한국 기독교 사회문제 연구원 편, 『민족주의와 기독교』, 서울 : 민중사.
서중석 (1995), "한국에서의 민족 문제와 국가 – 부르조아층 또는 지배층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회 편, 『근대 국민국가와 민족문제』, 서울: 지식산업사.
서정민 (1986), "초기 한국교회 대부흥운동의 이해," 이만열 외, 『한국 기독교와 민족운동』, 서울: 보성.
신기영 (1995), 『한국기독교의 민족주의, 1885-1945』, 서울: 동혁.
윤경로 (1986), "105인 사건과 기독교 수난 – 기소자 122인의 인물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 기독교와 민족운동』, 서울: 보성.
이만열 (1991), "한말 기독교인의 민족의식 동태화 과정," 이만열, 『한국 기독교와 민족의식』, 서울: 지식산업사.
임지현 (1999),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 신화와 허무의 민족주의 담론을 넘어서 서울: 소나무.
장규식 (2001), 『일제하 한국 기독교민족주의 연구』, 서울: 혜안.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1989), 『한국 기독교의 역사』 I, 서울: 기독교문사.
한국사연구회 편, 지음 (1995), 『한국사 강의』, 서울: 지식산업사.
한국역사연구회 편 (1989), 『한국사 강의』, 서울: 한울아카데미.
한규무 (2000), "한국기독교 민족운동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기독교역사학회 엮음, 『한국기독교와 역사』, 12. 75-107
Robinson, M. (1988), *Cultural nationalism in colonial Korea*, 1920-1925, 김민환 역 (1990), 『일제하 문화적 민족주의』, 서울: 나남.
Wells, Kenneth M. (1991), New God, New Nation: Protestants and Self-Reconstruction Nationalism in Korea 1896-1937, 김인수 역 (1997), 『새 하나님, 새 민족』, 서울: 한국장로교출판부.

• 논문접수 : 2006년 10월 19일
• 수정본 접수 : 2006년 12월 2일
• 게재승인 : 2006년 12월 16일

Dokdo forever belongs to Korea 영원한 우리땅, 독도

Abstract

A Review of the Historical Issues and Assignments of the National Movement in Korean Christianity

Yang Sik Park(Soongsil University)

Discussing the christian national movement in Korea, the first thing to review is about the matter of nation. The characteristics of a national movement may be defined according to how to define the matter of nation and how to grope for the solution of it. A acknowledge of the matter of nation makes grasping a historical problem of the moment. Joining hands with nationalism in Korea, the christian national movement got a dynamic power of development. Therefore, the Korean Protestants raised the sense of mission, by which they would construct a new country based on the christian ideology as the new universal system. A new review is needed about the role that the christian nationalism in Korea played for a common goal of the nation called the integration of a nation. In christian national movement in Korea, the national leaders who belonged to Christianity showed their intention to a integration of nation. That did not have been come true because of the division due to a differentiation of ideological line. A new approach to the christian nationalism in Korea, especially its logic and plan should be requested. The historical studies lead to a historical reflection and raise awakening to the task of the times. Awakening makes historical actions motivate, and making a history caused by it becomes the responsibility of the times of the Korean Christianity.

Key Words: the national moveent, the matter of a nation, the Christian Nationalism, the integration of a nation.

성원한 우리땅, 독도
Dokdo forever belongs to Korea